

일교차 큰 봄철, 닭 생산성 감소 막으려면?

계사 환경관리 신경써야

〈닭 사육장〉

사육장 온·습도, 환기 관리 중요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환절기를 맞아 닭의 생산성 감소를 막고, 질병 예방을 위해 계사(닭 사육장) 환경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9일 강조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환절기에 계사 환경 관리가 소홀하면 닭의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질병에 감염되기 쉽고, 생산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환절기에는 계사의 온도, 습도 및 환기 등에 더욱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 낮 동안 기온이 올라도 밤에는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낮이 풀렸다고 보온시설을 곧바로 철거해서는 안 된다. 당분간 보온시설을 유지하며, 계사 안 일일 온도차가 10도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산란계(알 낳는 닭)는 저온을 견디는 힘이 다른 품종에 비해 강한 편이다. 그러나 급격히 온도가 떨어지면 사료섭취량은 늘지만 산란율이 떨어진다.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하거나 알출이 더디다. 또한, 육추 후기(3주령 이후)에는 온도를 21도 전후로 유지해야 약한 병아리(약추)가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온도가 낮은 밤이나 아침 무렵에 계사 안 습도가 너무 높으면 닭이 체온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산란계의 적정

상대습도는 50~75%, 육계는 60~70% 수준이다. 또한 계사 안 열기, 습기 및 각종 유해가스를 배출해 닭이 질병에 걸리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계사 안 암모니아 농도가 높으면 산란율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바깥 기온이 낮은 때는 찬 공기가 닭 사육장 외부에서 따뜻한 공기와 섞여서 들어오도록 환기해야 한다.

육계를 사육하는 최길영 씨(경기도 화성시)는 “기온이 큰 폭으로 변화하는 환절기를 맞아 계사 관리 방법을 숙지해 환경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시동 기금연구소장은 “환절기는 닭을 키우기 까다로운 시기다. 따라서 닭 사육장 내 온도, 습도, 환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생산성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농생명·식품 분야 지원시책 ‘한권으로 정리’

도·생진원 ‘지원시책 총람’ 책자 발간

전북도와 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 이하 생진원)이 도내 농생명·식품 분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한 권으로 정리한 ‘농생명·바이오·식품기업 지원시책 총람’ 책자를 발간했다.

시책총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1년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밀착 지원하기 위한 전북도와 10개 유관 지원기관의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총망라돼 있다. 생진원은 도내 유관기관과 공동으

로 매년 초 도내 농생명·바이오·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설명회를 취소하고 지원시책을 정리한 총람책자를 발간해 도내 기업과 지자체, 유관기관에 배포한다. 또한, 생진원 홈페이지에도 시책자료 파일을 게시해 누구든지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책총람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필두로 ‘마케팅, 기술·사업화, R&D, 창업, 인력양

성·취업연계, 장비사용, 자금, 수출·해외진출 지원’ 등 8개 지원 분야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대상, 지원규모, 사업내용, 신청시기, 문의처 등 기업이 사업신청 시 필요한 내용들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수록돼 있다.

생진원 김동수 원장은 “도내 농생명·식품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사업 정보를 시책총람 책자를 통해 잘 활용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진원은 농생명·식품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점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안전문화 확산’ 새 나라 | 전기안전 미리어스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

전기안전의 꽃을 전할 청년 도우미들이 새 진용으로 나라를 쫓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지난 8일 온라인 화상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영상중계를 통해 ‘제10기 전기안전 미리어스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 행사를 가졌다.

전기안전 미리어스라는 이름의 대학생 기자단은 지난 2012년 공사 공식 블로그 개설과 함께 첫 걸음을 내디뎠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미리어스 기자단은 그간 생활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 관련 정보들을 발굴해 젊은 세대다운 감각 있는 영상과 콘텐츠로 전하며 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해왔다.



제10기 전기안전 미리어스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 화상 캡처.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실제로, 미리어스가 활약하는 공사 블로그는 개설 6년만인 2018년 방문자 1천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9,712명이 발길을 모아며 누적방문자 수 1,570만 명을 기록했다. ‘2020 대한민국 SNS 대상’과 ‘올해의 SNS 최우수상’을 잇달아 안은 이유다.

제10기 미리어스 기자단은 올해도

남녀 대학생 20명으로 운영된다. 연초 모집 공고에 140여명이 응모,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 예비 창업자를 비롯, 밴드와 사물놀이, 발명동아리 회원, 기업 영상물 제작, 글쓰기 공모전 수상자 등 각양각색의 이력을 갖춘 재원들이다.

활동기간은 올 연말까지며, 매달 개

한전 전북본부, 전기요금 이야기' 홍보 웹툰 제작

한전 전북본부(본부장 이경섭)는 올해 개편된 전기 요금 체계를 고객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 고객들이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웹툰 ‘알기 쉬운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이야기’를 제작했다고 9일 밝혔다.

홍보 웹툰 ‘알기 쉬운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이야기’는 개편된 전기 요금 체계를 알기 쉽게 내용을 담아 총 2화로 제작됐다. 1화에는 개편된 요금 체계에 신설된 기후환경요금에 관한 내용이, 2화에는 연료비조정요금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툰은 개편된 전기 요금 체계에 대한 고객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주인공과 한전 마스코트인 ‘에너지보이’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한전은 내방한 고객이 기다리는 짧은 시간동안 비치된 웹툰을 읽으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했다.

한전은 웹툰을 전북지역 전 사업소와 아파트 등 각지에 비치할 예정이며, 도청 홈페이지 팝업존,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전은 웹툰을 통해 고객들의 흥미와 쉬운 이해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경섭 한전 전북본부장은 “올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따라 고객들 입장에서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홍보 웹툰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카툰이나 유튜브 등 생활 밀착형 매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증대 노력”

백남정 신임 나원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신임 대표이사에 백남정 전 남원농협 경제사업본부장이 8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백남정 대표이사는 1986년도 남원농협에 입사해 34년동안 영농지도 및 농산물유통, 경제사업 업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원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또한 농업인들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집중하게 하고, 남원시 통합마케팅 활성화와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한 판로개척에 노력해 왔었다.

백남정 대표이사는 지난 8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농업인의 현장을 먼저 돌아보며 농업인의 안정된 출하와 소득증대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법인의 역할과 지자체와 가교 역할을 강화해 남원시 통합마케팅 취급액 정체현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신규 소득작물 발굴과 규모화 추진을



통해 2021년에는 900억원, 2025년에는 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백 대표이사는 엄격한 품질관리로 ‘춘향에인’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상승시키고, 장기적 발전방향으로 법인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마케팅역량 강화 및 사업내실화에 집중하고, 농업인, 참여농협, 남원시,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자주와 협력을 통해 소포장 판매사업과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 시대 비대면 마케팅을 통한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도, 협동조합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전북도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재도약을 돕는다. 도는 도내 (사회적)협동조합의 역량강화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컨설팅 지원은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통해 신청받으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이 가능해 컨설팅이 필요한 협동조합은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맞춤형 컨설팅은 협동조합 설립·경영·재도약 3개 부분을 지원한다. 컨설팅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홈페이지(http://www.jbsecoop.or.kr)를 참고하면 된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도내 협동조합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협동과 연대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언택트 상담장 ‘새단장’

전북중기청 1층에 비즈니스라운지 개소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과 전북코트리지원단(단장 이광일)은 9일 코로나19 침체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를 지원하고,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북중기청 1층에 화상상담장이 구축된 비즈니스라운지를 개소했다.

비즈니스라운지는 코로나19 해외 판로가 막힌 상황에서 급증한 온라인 수출상담 및 영상의 등 비대면 수요에 대응하고 기업과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했다.

이날 개소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전북코트리지원단, 입주기관인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의 소수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화상상담장은 수출기업 화상상담회 뿐

만 아니라 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입주 협·단체에 영상의회 개최 등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전북중기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요가 증가한 인기품목을 중심으로 전북중기청, 전북코트리지원단 협업 해외 유명바이어 초청 ‘온라인 수출상담회’도 3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코로나시대 맞춤형 판로 지원을 위한 거점 공간이 구축되었다”며 “국내외 MD 초청 상담회는 물론, 언택트 아카데미, 수출활력 촉진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개최할 예정이니 중소기업은 양 기관의 언택트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은, 돼지카드 ‘새해맞이 경품이벤트’ 당첨자 발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전주시 지역화폐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 사용 고객을 위해 진행한 ‘새해맞이 경품이벤트’의 4주차 당첨자를 9일 발표했다.

이번 4주차 IG스타일러 당첨의 주인공은 총 3명이며, 추가로 전주사랑상품권 충전 인센티브 4만점에 당첨된 100명의 고객들은 지난 3일 인센티브 충전이 완료된 상태다. 당첨자 중 한 명인 이모씨는 “돼지카드의 10% 캐시백 덕에 고액결제 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



올 상반기 시금형제작지원 참여 업체 모집

도·경진원, 31일까지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도내 예비창업자와 제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돌봄기업을 넘어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1년 시금형제작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이 사업은 도내 예비창업자와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이후 양산 전 단계의 시금형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제작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8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했고, 사업에 참여한 에스엔엔테크 등 4업체는 시금형제작 이후 양산 과정에 돌입했다. 또한 (주)다덴티는 본 사업을 통해 제작한 시금형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등록하고 오픈마켓에 제품 판매를 시작해 사업을 확장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금형제작지원에 참여할 6업체를 모집한다. 현재 희망업체를 모집 중에 있으며,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건협 전북지부, 전주김제완주축협과 건강증진 협약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는 전주김제완주축협과 조합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건강검진 협약을 9일 체결했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은 2003년 설립 이래 축산인의 꿈과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을 잇는 도농 교류의 창구로써 축산인의 운명적인 삶을 위한 농정활동사업과 축산물 판매, 가공, 사료생산 등 경제사업과 축산업자금의 조달, 공급, 예금 및 대출 등 상호금융 업무와 보험 사업에 이르기까지 농촌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김윤상 기자

